

아이디어 기획서: AI 예술 실패 박물관			
작성일자	2025-10-13	소속	한성대학교
연락처	010-9156-2502	팀원	조수빈, 김유정, 송현태, 이보인
1. 문제정의			
<p>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2025년 현재 Midjourney, DALL-E 등 최첨단 도구들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게 되면서 예술과 창작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b>창작물의 획일화와 실험성의 상실 등 AI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b>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 예술의 문화적 편향과 균질화</b>  토론토 대학의 『Artificial Intelligence, Music Recommendation, and the Curation of Culture』(2021)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창작물들은 <b>의미론적 유사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동질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아이디어의 수렴과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b> 또한 2025년 IBM의 『Impact on cultural diversity risk for AI』에서는 기초 모델들이 특정 문화나 미학을 과대표현함으로써 문화적 균질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본질적 편향에서 비롯된다. 현재 AI는 주로 완성된 작품, 특히 '좋아요'나 높은 평가를 받은 상업적 성공작을 학습한다. 대중적 인기나 제도적 인정을 받은 작품은 이미 검증된 미학 코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b>AI는 특정 트렌드나 미학에 고착되고 필연적으로 문화적 편향으로 수렴한다.</b> 이는 결국 예술적 실험과 진화의 본질을 저해한다.</li> <li>● <b>예술의 본질</b>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결코 완성품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b>예술은 본질적으로 실패와 탈피, 혼란 속 실험을 통해 진화해왔다.</b>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예술적 실패와 실험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 연못에서 수십 년간 같은 소재를 반복하며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고, 수많은 실패작을 쌓아 자신만의 화법을 완성했다. 앙리 마티스는 관절염으로 붓을 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컷아웃 기법을 탄생시켰다. 폴 세잔은 같은 산을 60여 차례 반복하며 매번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끝없는 실험을 거쳤다.  <b>이들의 혁신은 실패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했다.</b> 각각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실패를 통해 기존의 관습을 해체하고,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했던 것이다.</li> <li>● <b>AI가 예술적 실패로 향하는 이유</b>  그렇다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왜 '예술적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b>인공지능은 예술의 과정을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b> AI는 작품의 완성된 결과물만을 보고 패턴을 학습할 뿐,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시행착오, 실패와 수정의 과정, 작가의 고민과 감정, 사회적 맥락과의 충돌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  결국 인간이 겪는 '실패'에는 삶이 녹아있다. 개인적 좌절, 사회적 압력, 경제적 어려움, 기술, 신체적 제약 등이 모두 실패의 맥락을 형성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과 실패가 예술을 발전시키는 진정한 동력이다. 이는 절대로 완성작 하나로만 담을 수 없는 것들이다.  <b>바로 이러한 과정의 부재가 AI 예술이 획일화되고 '실패'라고 평가받는 근본적 원인이다.</b></li> </ul>			

## 2. 아이디어 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실패'를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AI 예술 실패 박물관(AI Art Museum of Failures)**<sup>1</sup>'을 제시한다.

실패박물관의 개념은 2017년 사무엘 웨스트가 설립하여 이미 존재한다<sup>2</sup>.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근본적인 차이를 둔다. 기존 박물관이 '완성된 실패작'을 전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의 전시는 '실패의 과정' 자체를 데이터화하고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이런 제품이 실패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완성작'만을 학습시켰던 인공지능과 달리, 우리는 박물관처럼 시간의 흐름과 누군가의 실패 과정, 그리고 삶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순히 완성작만을 학습하는 AI와 달리, 우리는 **예술 창작 과정의 변화(실패→수정→진화)를 시계열 데이터로 구조화하고, 이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 아카이빙한다. 그리고 그 시계열 데이터에는 단순히 그림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설명처럼 각 그림에 해당하는 사회적 맥락과 작가의 감정도 함께 담는다.**

창작의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개인적 실패를 겪고 완전히 화풍이 변해버린 작가의 그림 변화 과정을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완성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일 수도 있다. AI가 수많은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수정되어가는 이미지들의 집합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정 그 자체이며, 그 안에 담긴 실패를 통해 그림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 ● [1단계] 데이터 구조화

예술가별 혹은 작품별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시계열)'을 한 세트로 만든다. 진짜 박물관처럼 각 데이터에 '창작 의도', '실패 유형', '감정', '시대적 맥락' 등의 메타데이터를 라벨링한다. 예를 들어, 모네의 수련 연작이라면 각각의 스케치, 중간 과정, 완성작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각 단계에서 모네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기법적 실패를 겪었는지, 당시의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반응을 받았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 [2단계] AI 학습과 분석

AI가 이러한 과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및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단순히 결과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색채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런 실패 상황에서는 이런 대안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식의 과정적 지식을 학습하고 활용한다.

### ● [3단계] 피드백 시스템

<sup>1</sup> AI 예술 실패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다: <https://sites.google.com/hansung.ac.kr/museum-fail/%ED%99%88>

<sup>2</sup> 실패 박물관, <https://museumoffailure.com/>

예술가, 큐레이터, 또는 박물관을 감상하는 모든 이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피드백은 단순히 좋다/나쁘다가 아닌 과정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 **[4단계] 순환 학습**

AI는 이러한 피드백을 다시 학습에 반영한다. 특히 실패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접근법을 축적해나가면서, 점점 더 풍부한 실패의 레퍼토리를 구축한다.

- **[5단계] 창의적 응용**

궁극적으로 AI는 인간이 실패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지를 깊이 학습하게 된다. 단순히 완성작의 구도나 색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시도를 했다"는 식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AI는 틀에 박히지 않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실패하는 과정조차도 예술이다"**라는 것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실패의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이라면, AI도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AI 아트를 인간의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 3. 실현 계획: AI 예술 실패 박물관, 제1전시실 개관 준비

이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예술가들이 자신의 실패작을 기꺼이 공유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초기 데이터 확보 문제에 달려있다. 우리는 무작정 플랫폼을 공개하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박물관 개관 준비'라는 3단계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제안한다. 최초의 참여자들은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박물관의 '창립 큐레이터'이자 '첫 번째 전시의 주인공'이 되어, AI라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함께 준비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다.

- **[1단계] 소장품 수집**

전 세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박물관 창립 아티스트' 100명을 선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당신의 가장 위대한 실패가 AI 예술의 역사가 된다"는 메시지로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창작 과정이 담긴 데이터 한 개를 '실패 노트', 즉 작품 해설과 함께 박물관의 '첫 번째 영구 소장품'으로 기증할 것을 요청받는다. 창립 아티스트에게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프로젝트의 역사적 기여자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보장한다.

첫째, 기여한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모든 예술적 스타일에 대한 '원본 소장품' 크레딧을 영구히 명시하며, 관련 상업적 활용 시 수익을 공유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째, AI가 기증된 소장품들을 학습하며 스스로의 예술성을 구축해나가는 그 비밀스러운 창작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는 이 특별한 경험의 공간을 'AI 아틀리에'라고 명명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박물관의 모든 기능에 대한 최고 등급의 영구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창립 파트너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한다.

- **[2단계] 개관 특별전**

100개의 소장품 학습을 마친 AI가 처음으로 생성한 작품들로 '실패 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AI가 만든 작품 옆에, 그 창작에 영감을 준 '창립 아티스트'의 이름과 그들의 '실패 노트'가 함께 전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AI의 창작물이 인간의 실패라는 '유산'을 계승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박물관 개관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된다.

- **[3단계] 대중 공개**

성공적인 개관 특별전 이후 'AI 예술 실패 박물관'을 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살아있는 생태계로의 확장을 시작한다. 이 시점의 플랫폼은 '실패작을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역사로 기록하고, 그 역사를 학습한 AI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곳'으로 포지셔닝된다. 이 때 자신의 실패 과정을 '소장품'으로 기증해야만 박물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장을 유도한다.

#### 4. 기대 효과

AI를 예술 실패 박물관이 구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 **창작의 다양성과 실험성 회복**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AI 생성 작품의 획일화 문제 해결이다. 현재 AI가 비슷한 프롬프트에 대해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달리, 실패 과정을 학습한 AI는 동일한 목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픔을 표현하는 초상화"라는 같은 요청에 대해서도 모네식의 색채 해체 등 서로 다른 실패와 실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줄 수 있다.

- **예술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예술 교육에도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완성된 명작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 과정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AI가 제시하는 다양한 실패 시나리오와 대안적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실험적 시도를 더욱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다.

#### 5. 사회적 의의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공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 실패는 숨겨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AI 예술 실패 박물관을 통해 실패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필수적 과정임을 재조명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학습 생태계를 목적으로 한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순환되면서, 점점 더 풍부하고 다양한 창작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게 된다.

- **예술의 본질적 가치 복원**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종종 상품화되고 상업적 성공 여부로만 평가받는다. 하지만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완성된 작품보다는 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고민과 실험, 좌절과 극복의 과정이야말로 예술의 진정한 가치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깊어지고,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 **인간-AI 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AI 예술 실패 박물관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

을 제시한다. AI는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학습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고,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의도, 맥락을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AI 시대에 인간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며, 상호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6. 윤리적 고려사항 및 대응 방안

본 프로젝트는 인간의 창작 과정이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새로운 방식의 AI를 제안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 아티스트 보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데이터 기여자인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증되는 '실패작'이나 '과정' 데이터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증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데이터 기증 시,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은 원작자에게 유지되나 AI 학습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다. '실패'라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모든 기증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강력한 익명성 보장 기능을 제공하며,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박물관에서 삭제하고 학습 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데이터 통제권을 부여하여 작가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 ● 표절 위험과 편향 위험

AI 모델의 학습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정 지역, 문화, 성별의 아티스트들로부터만 실패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AI가 '실패'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학습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창립 아티스트' 선발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지리적, 장르적 다양성을 핵심 선발 기준으로 삼아 데이터셋의 편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AI 생성물의 저작권 및 표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는 '도구'이며 최종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정의한다. 동시에, AI가 결과물 생성 시 어떤 '원본 소장품'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출처를 명시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표절 위험을 줄인다.

### ●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마지막으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신중히 고려한다. 본 프로젝트가 의도와 다르게 '성공'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어설픈 실패'를 미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콘텐츠 큐레이션과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실패', 즉 회복력과 실험 정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단순히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시도했는지를 조명함으로써 건강한 실패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